

환경의식과 가정 쓰레기의 처리행태에 관한 연구*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Disposal Behavior of Home Consumption Goods*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곽인숙

우석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송요숙

우석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김태년
부교수 김경애

Woosuk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Prof. : Kwak, In-Sook

Dept. of Food and Nutrition
Prof. : Song, Yo-Sook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Prof. : Kim, Tae-Nyun

Associate Prof. : Kim, Kyung-Ae

◀ 목 차 ▶

I. 서론	IV. 조사결과 분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ome influencing factors related to housewives' environmental concer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 with 786 housewives who live in Jeonbuk area.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level of environmental concern was relatively high and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level of innovation, residence, the level of education, and age of wives. But the leve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behavior was relatively low, especially clothing disposal behavior and buying something to eat. These findings pointed that the program of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more pragmatic.

* 본 연구는 1996年度 학술진흥재단 지역개발 과제 연구지원에 의한 것임.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세기에 들어 인구 증가와 산업화 및 경제발전 에 따른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는 폐기물 및 오염물질의 증가와 재활용보다는 소모성 위주의 용품 사용의 증가로 인해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결국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쓰레기 문제는 1960년대 이전에는 발생량도 많지 않고 자연생태계의 자정용량 범위내에서 쉽게 처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결과로 현 사회는 각각의 가정에서의 소비수준도 질적, 양적으로 증대되어 쓰레기의 발생량도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현상이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2.2Kg으로 일본보다 많고, 그중 음식류 쓰레기가 27.4%로 가장 많으며 2000년대에는 44.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근래에 들어 의류중 특히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되는 합성섬유의 소비량이 천연섬유의 소비량보다 많아져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유연실, 1996). 또한 우리들의 일상생활용품의 중요한 소재인 plastic 종류는 전세계에서 연간 약 1억톤을 생산해내고 있으며, 가볍고 강한 강도등의 우수한 불성때문에 앞으로 그 생산량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오는 2000년에는 3억톤이 생산될 전망이다. 이같은 합성plastic은 합성섬유와 마찬가지로 자연계에서 그 분해가 어려워 자연 미관 손상은 물론 환경오염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음식쓰레기의 증가, 가정용 생활용품의 구매 증가에 따른 폐기제품의 증가, 합성섬유와 합성플라스틱 제품 사용의 증가는 모두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가정에서의 제품의 구매·사용·처분 과정은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즉, 환경문제의 발생은 산업적인 것 이외에 개인이나 가정의 소비행동(구매나 획득·사용·처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해결 역시 개인이나 가정의 효율적인 행동에 의해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인간적 삶을 위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1992년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환경관리와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중대하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환경문제 해결에 가정주부들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관심과 환경의식의 고조로 인해 환경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공해, 환경교육, 환경법 등에 초점을 둔 것들이며, 가정과 환경문제를 연결시킨 연구로서 최근에 발표된 환경관련변인과 이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행동, 자원·에너지 절약에 관한 연구(서정희, 1986; 노채영, 1991; 현금희, 1991; 장혜경, 1993)가 실천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소비행동(안향아, 1994) 가사노동영역(엄하정, 1993), 환경교육이나 환경관리지식(최남숙, 1994; 노남숙, 1994)과 환경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쓰레기 발생량이나 의류, 내구재의 처분행동을 거주지역에 따라 비교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매립지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값싸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미흡한 현실에서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의 근원인 구매단계부터 처분과정까지 추적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환경변인과 주관적 변인인 주부의 개인적 성향이 환경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가정에서의 의류, 내구재, 일반생활용품의 처분행동과 가정에서 생활재화를 구매하는 과정, 사용행동, 처분행동으로 나누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주관적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주부의 관리행동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부의 환경교육 및 재활용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환경의식과 관련연구

환경의식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나 손경희(1993)는 한일가정학회의 기초강연에서 “환경의식이란 이전의 가치관으로부터의 단절과 변화를 의미하며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인간에게 생활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치관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킨다. 새로운 삶의 환경은 새로운 의식을 요구한다. 즉 인간이 바라는 환경의 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자연자원의 착취가 아니라 환경과의 조화와 공존이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최남숙(1994)은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중 자원의 구매, 사용, 폐기의 생활관리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행동을 배제하고 생태적인 생활양식을 선택하며 또한 자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희생하여 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며,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을 꾀하려는 생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홍기남(1992)의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교육수준이 생활환경에 대한 의식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환경의식에 관한 권봉애 외(1995)의 연구결과 주거형태, 어머니의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이 영향을 미쳐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이 환경의식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의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Brooker(1976)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자아실현의 정도가 높을수록 환경문제를 많이 의식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변순희 외(1995)의 연구결과 환경보전의식은 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즉 주부가 지닌 가치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연옥 외(1995)의 연구결과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환경보전지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희(1997)의 연구결과 환경보전태도가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나 주부의 연령,

취업유무 및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의식이란 “가정생활용품의 구매, 사용, 처분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식적이고 일관성있게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인이 이전의 가치관으로부터의 단절과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며, 자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희생하여 절약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자 하는 생각”이라고 정의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환경의식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이전의 가치관으로부터의 단절과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성에 의해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주관적인 변인에 주부의 자아분화수준, 개혁성, 생활만족도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2. 쓰레기 처분행동

쓰레기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문명사회로부터 배출되는 폐물질중에서 고체의 형태로 버려지는 것. 고형폐기물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 및 처분하지 않을 경우, 생활공간을 어지럽히고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쓰레기는 생활폐기물·각종 슬러지·산업폐기물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고 되어 있다. 즉 쓰레기의 문제는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며, 발생후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발생량 자체를 줄이거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생활용품의 생산과정에서 산업체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구매단계에서의 주부의 현명한 선택행동은 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킬수 있다. 또한 발생된 쓰레기를 적절하게 이용가치를 지닌 다른 집단에 이전시켜 재이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처분행동이란 “제품을 통한 욕구를 충족시킨 후

의 처리행동"이나 "제품이 그 원초적 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가게가 그 제품에 적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박명희 외, 1995에서 재인용). 처분행동이란 제품의 유지(계속 사용, 목적 변경사용, 보관), 제품의 영구적 처분(버림, 기부, 판매, 교환), 제품의 일시적 처분(대여, 임대)등으로 나눌 수 있거나, 재이용과 재활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재활용의 방법은 쓰레기화하는 과정과 이를 다시 재생시키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재이용 처분방법은 직접적으로 시장내에서 소비자들의 소비를 감소시키게 되며, 이는 곧 가정내에서의 쓰레기화되는 물품의 양을 감소시키게 된다(박명희 외, 1995).

안길상(1993)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재활용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승신(1993)의 환경보존을 위한 소비자 능력의 연구결과 연령이 많고, 학력이 낮고, 저소득층일수록 환경보전 수행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부의 연령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참여도와 소득,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연구한 Webster(1985)는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활용 참여도가 높다고 밝혔다. 변순희 외(1995)의 연구에서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재활용과 감량화 행동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쓰레기 분리수거 참여행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주부이고 월평균가계소득이 중류이상인 경우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3. 환경관리행동과 관련된 연구

환경관리행동이란 가족원의 욕구충족이라는 가족의 목표와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가정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구매획득하는 과정에서, 구매할 때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로 환경오염 여부나 쓰레기 배출정도가 포함된

다면, 선택의 결과가 기업에 피드백되어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변순희 외, 1995). 또한 자원의 사용과 처분활동에서도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성이 증대되거나 쓰레기의 배출량이 감소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주관적 규범에 의해 환경자원을 고려해서 물품을 선택하는 것이 요구된다.

후기 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차 상품의 질, 환경의 질, 생활의 질에 대한 열망으로 대체되고 질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박명숙, 1990). 그러나 이러한 질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욕구충족을 위한 무절제한 소비행위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과소비의 결과로 효용가치가 있는 물품의 처분이나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라는 부수적인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환경을 의식한 소비자는 특정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 사용 및 처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식적이고 일관성있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 태도, 의식 및 행동에 반영시키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즉 환경을 의식하는 소비자는 사적인 소비가 타인, 사회,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염두에 두고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사용·처분하며(박운아 외, 1995), 개인의 욕구와 사회의 복지까지도 함께 고려한다(서정희, 1986)고 보았다. 따라서 환경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일반사람들보다 더 환경을 의식한 행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환경보전행동이나 환경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의식, 환경에 관한 지식, 환경교육의 경험(노남숙, 1994; 최남숙, 1994)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관리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개인이 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환경의식임을 알 수 있으며,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의 주관적 규범은 환경관리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서정희, 1986), 환경오염 감소와 관련된 주부의 관리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편의주의 가치로

서, 편의주의적 가치에 덜 배물되어 있는 주부일수록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려는 환경지향적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하정, 1993). 또한 주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행동은 통제론적 가치성향이 높고, 안정지향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수행수준도 높게 나타났으며(이무영 외, 1995), 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화 행동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순희 외, 1995).

자아분화는 정신 내적(intrapsychic) 개념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인 기능과 지적인 기능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전춘애, 1994 재인용). 자아분화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은 지성이 정서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거의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자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쉽게 변하여 정신병적 증상이나 비행을 나타내기 쉽다.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지적이고 정서적인 기능 사이에 균형을 이루므로 뚜렷한 자신의 신념에 의해 행동하며, 자율성을 지닌다.

사회경제적 지위나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의식이 높고(이승신 외, 1993), 소득이 낮을수록 환경의식적 행동수준이 높다(박운아 외, 1995)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이 연령, 교육수준, 사회계층 등 인구통계적 변수나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한 영향은 받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정우 외(1994)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들의 관리행동수준은 연령이 낮고, 전업주부이며,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일수록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오연옥 외(1995)의 연구결과 환경보전관리행동은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길상(1993)의 연구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행동인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행동과 자녀수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무영 외(1995)의 연구결과 자녀수가 적을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행동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이나 가족이 어떤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생활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긍정적인 환경관리행동을 실천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개인의 환경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인으로는 거주지역, 소득수준, 교육수준, 자녀수, 개인이 지닌 가치, 주관적 규범, 행동경향, 행동을 통제할수 있는 자아의 분화수준, 생활만족의 수준, 환경에 대한 의식이나 관심 등임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주부의 환경의식과 쓰레기 처리태도를 조사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주부의 역할을 조명하고 환경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주부들의 전반적인 환경관리의식수준은 어떠하며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나?

둘째, 주부들의 환경관리의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하며, 지역(도시와 읍면지역)에 따라서 변수들의 영향요인이 차이를 보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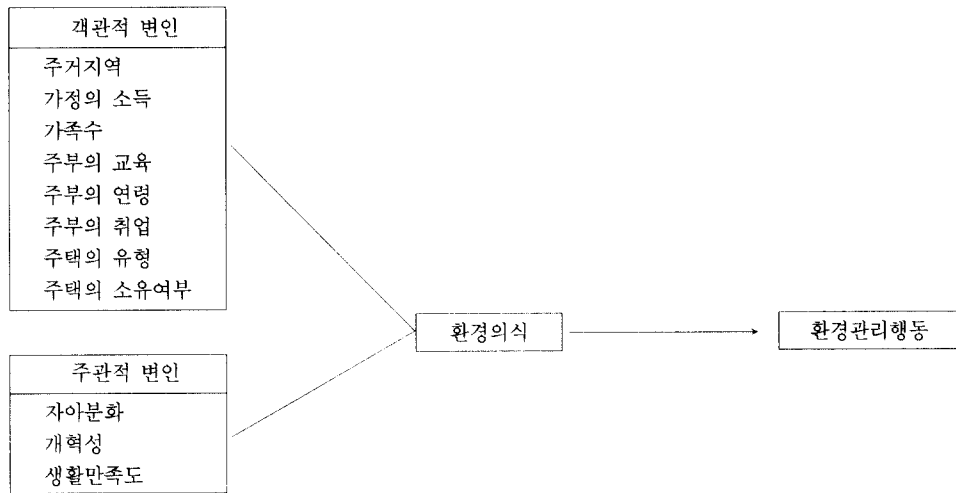
셋째, 가정에서의 쓰레기 발생량, 의류와 내구재 쓰레기를 처리하는 행태는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일반 생활용품의 구매, 사용, 처분과정의 환경관리행동은 어떠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연구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2. 측정도구의 구성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조사대상자의 객관적 변인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주거지역, 주택의 유형 및 소



〈그림 1〉 연구모형

유여부, 가정의 소득, 가족수,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연령 및 취업여부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변인으로는 주부의 자아분화 수준, 개혁성의 수준, 생활만족의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부의 자아분화수준은 주부의 객관적인 사고와 자율성에 영향을 미쳐 환경의식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전준애(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중 일부를 선택수정하여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혁성은 주부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쳐 환경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권오정(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중 6개를 선정하였다. 주부의 생활만족도 역시 생활환경에 대한 문제인자와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6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환경의식은 환경에 대한 가치관, 책임의식, 자연관, 본인의 관심, 환경피해의식 등으로 구성된 2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쓰레기 처분행동은 의류와 내구재의 쓰레기 발생원인과 처분행동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가정에서의 대표적인 내구재 품목인 TV, 냉장고, 안방장롱 등 8개 품목, 의류에서는 정장류와 속옷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처분하는 이유는 6가지 항목을 제시하였고, 처분방법은 5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 제품별로 처분이유와 처분방법을 대안들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게 하였다. 종속변수인 환경관리행동은 일반생활용품의 구매·사용·처분행동에 관한 1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는 전북지역의 3개도시와 읍면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총 800부를 배부하여 총 789부가 회수하였으며, 이중 부실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분석에는 786부가 사용되었다. 조사는 1997년 5월 19일부터 6월 12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4. 분석방법

SAS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쓰레기 발생량, 의류와 내구재의 처분행동은 빈도, 퍼센트, 평균 등을 계산하고, 환경의식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처분행동의 지역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F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쓰레기발생량, 환경의식, 일반생활용품과 관련된 환경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객관적 변인	
주거지역	도시지역=1 읍면지역=0
가정의 소득	가정의 월평균 총소득
가족수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수
주부의 교육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주부의 연령	조사대상자의 연령
주부의 취업	취업주부=1 전업주부=0
주택의 유형	단독주택=1 공동주택=0
주택의 소유여부	자가소유=1 임차가구=0
주관적 변인	
자아분화(10)	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그렇다
개혁성(6)	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그렇다
생활만족도(6)	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그렇다
환경의식(21)	1=전적으로 반대한다 2=반대하는 편이다 3=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4=동의하는 편이다 5=전적으로 동의한다
의류의 처분방법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의류수거함에 넣는다 필요한 집에 준다 길레 등으로 사용한다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린다
내구재의 처분방법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중고시장에 팔거나 물물교환을 한다 필요한 집에 준다 복지기관에 보낸다 내다 버린다
전반적인 환경관리행동(15)	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가끔 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5=항상 그렇다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값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IV. 조사 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주거

지역은 도시지역이 56.3%, 읍면지역이 43.7%였으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가 37.2%, 단독주택이 22.3%,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각각 4.8%였다. 주택의 소유상태는 자가소유가 71.2%, 임차가구가 28.8%였다. 가정의 소득은 100만원이하가 12.1%, 101~200만원이하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201~300만원이하가 33.1%, 301만원이상이 14.4%, 평균 소득은 218.5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가족수는 4명인 경우가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86)

범주변수	구분	빈도(%)	범주변수	구분	빈도(%)
주거지역	도시지역	443(56.3)	가족수	2명이하	60(7.6)
	읍면지역	343(43.7)		3명	140(17.8)
주택의 유형	단독주택	374(22.3)	주부의 교육	4명	309(39.4)
	연립주택	38(4.8)		5명	184(23.4)
	다세대주택	38(4.8)		6명이상	93(11.7)
	아파트	292(37.2)		중졸이하	184(23.3)
	기타	44(5.6)		고졸이하	405(51.2)
주택의 소유	자가	559(71.2)	주부의 연령	대졸이상	202(22.5)
	임차	227(28.8)		30대이하	215(27.2)
가정의 소득	100만원이하	94(12.1)	40대	319(40.6)	
	101~200만원	314(40.4)	50대	191(24.1)	
	201~300만원	267(33.1)	60대이상	66(8.1)	
	300만원이상	121(14.4)	주부의 취업	전업주부	456(58.0)
			취업주부	330(42.0)	

39.4%로 가장 많았으며, 5명이 23.4%, 3명이 17.8%였으며, 2명이 7.6%였으며, 평균 가족수는 4.2명으로 전국평균보다 약간 많은 경향을 보였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가 51.4%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하가 23.3%, 대졸이상이 22.5%였다. 주부의 연령은 30대 이하가 27.2%, 40대가 40.6%, 50대가 24.1%, 60대이상 8.1%였으며, 주부의 취업여부는 전업주부가 58.0%, 취업주부는 42.0%였다.

2. 환경의식

조사대상자의 환경의식수준은 최저 55점에서 최고 105점으로 평균점수는 82.76점이며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은 3.94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용을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이 의식하고 있는 요인 I은 '환경문제는 인류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등의 광범위하나 다소 추상적인 환경의식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I은 전체 환경의식의 31.44%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II는 환경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전

체 환경의식의 6.82%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III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쓰레기의 처분방법에 대한 의식으로 환경의식의 6.16%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IV는 환경보호를 위하는 일이라면 자신이 불편하더라도 참고 에어컨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자가용의 부제운행에 참여하겠다는 의식과 경제적 부담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환경의식의 5.54%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V는 환경문제 때문에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의식으로 5.03%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요인들의 총설명력은 54.98%였다.

이전의 다른 연구(노남숙, 1994; 박운아 외, 1995)의 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주부들의 환경의식수준에 비해 실제 행동에서는 별로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환경의식 중 대부분이 요인 I과 같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환경의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생활에서 이것들이 실천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환경교육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필요성에 대한 홍보보다는 실제적인 행동의 결과를 인지할 수 있고, 행동과정을 교육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환경의식척도의 요인 행렬표

문항번호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communality
3	0.71788	0.13784	-0.00168	0.14001	0.05045	0.5565
18	0.67873	0.01100	0.31465	0.06880	0.05697	0.5677
10	0.66523	0.21128	0.17225	0.07127	0.00118	0.5219
9	0.64577	0.17449	0.20053	0.17141	-0.02518	0.5177
8	0.62313	0.38609	-0.05902	0.09292	-0.1081	0.5612
17	0.59259	-0.06720	0.35534	0.09827	0.12939	0.5083
5	0.58884	0.15097	0.23225	0.17752	0.10991	0.4671
1	0.54398	0.26154	0.08597	0.08364	0.14165	0.3987
6	0.53485	0.23257	0.23777	0.31320	0.06805	0.4994
12	0.18628	0.75169	0.09451	0.07158	0.13210	0.6312
11	0.08529	0.67371	0.14415	0.20535	0.08084	0.5306
7	0.13759	0.54082	0.12869	0.00103	-0.09846	0.3377
13	0.29125	0.51000	0.07590	0.24868	0.06187	0.4164
20	0.18093	0.16248	0.76132	0.22079	0.05045	0.6900
21	0.24911	0.27027	0.68096	0.02502	0.05751	0.6027
19	0.44970	0.09623	0.60808	0.14233	0.06202	0.6053
15	0.03199	0.08775	0.16290	0.77959	-0.09681	0.6524
14	0.28871	0.22719	-0.00570	0.70836	0.16346	0.6635
4	0.24353	0.09323	0.12938	0.65977	-0.01475	0.5202
16	0.15033	0.00882	-0.05429	0.00791	0.81208	0.6852
2	0.00052	0.07529	0.17921	-0.00339	0.75796	0.6123
고유치	6.6018	1.4324	1.2938	1.1624	1.0557	
분산(%)	31.44	6.82	6.16	5.54	5.03	54.98

3. 주부의 환경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주부의 환경의식의 수준은 평균 3.94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주부들의 환경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개혁성 수준($\beta = .259$)으로 개혁성이 강할수록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주부의 교육수준($\beta = .209$), 거주지역($\beta = .184$), 주택의 유형($\beta = -.123$), 주택의 소유($\beta = .122$), 주부의 연령($\beta = .116$)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혁성이 높아 이전의 가

치관으로부터의 단절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주부일수록 환경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고,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공동주택에 거주할수록, 자신의 주택에 거주할수록 환경보전의식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게 나타나 오연옥 외(1995)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환경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서정희(1997)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변수들의 총설명력은 17.1%였다. 거주지역에 따라 환경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에서는 주부들의 환경

〈표 4〉 주부의 환경의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 수	B (β)	도시지역 B(β)	읍면지역 B(β)
주거지역(농촌)	3.508(.184)***		
주택유형(공동주택)	-2.319(-.123)*	.153(.018)	.212(.025)
주택소유(임차가)	2.731(.122)*	1.138(.131)**	-.011(-.001)
주부의 교육수준	1.669(.209)***	.302(.081)	.236(.069)
가족수	-.241(-.032)	.259(.081)	.247(.071)
가정의 소득	-.005(-.053)	-.006(-.152)**	.001(.024)
주부의 취업	.257(.082)	-.041(-.030)	-.019(-.013)
주부의 연령	1.280(.116)*	.005(.021)	.071(.015)
자아분화	.014(.006)	.078(.083)	.159(.191)***
개혁성	.536(.259)***	-.208(-.050)	-.170(-.043)
생활만족도	-.028(-.011)	.289(.289)***	.034(.028)
Constant	23.081***	24.281***	24.381***
F-value	5.947***	4.978***	1.976*
R ²	0.171	0.105	0.058

* p<.05 ** p<.01 *** p<.001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생활 만족의 수준($\beta=.289$)이었으며, 다음은 가정의 소득($\beta=.152$), 주택의 소유($\beta=-.131$)의 순으로 영향을 미쳐 자가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환경의식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0.5%수준이었으나, 읍면지역에서는 주부의 자아분화수준($\beta=.191$)만이 영향을 미쳤으며, 변인의 설명력은 5.8%였다.

4.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의 크기는 20리터용 비닐봉지가 가장 많아 전체의 45.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10리터용이 32.3%를 차지하였고, 100리터용 비닐봉지의 사용이 가장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1주일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은 20리터가 가장 많아 226가구(29.9%)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40리터를 배출하는 가정이 132가구(17.4%)였으며, 다음은 10리터를 배출하는 가정이 97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정의 1주일간 배출하는 총 쓰레기양은 가장 적은 가정이 5리터에서 가장 많은 가정은 400리터까지였으며, 평

균 35.9리터인 것으로 나타나 20리터용 비닐봉지 2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1주일간 배출하는 쓰레기의 총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쓰레기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수($\beta=.150$)로 가족 1인이 증가할 때 43리터의 쓰레기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거주지역($\beta=-.146$)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에 쓰레기의 발생량에 대한 t-test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T=2.85^{**}$)를 보여 도시지역에서 1주일간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은 평균 32.8리터이며, 농촌지역에서는 평균 40.1리터로 농촌의 쓰레기 발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족의 소득($\beta=.125$)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설명력은 11.3%였다.

5. 의류의 처분이유

새로 구입한 의복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착용빈

〈표 5〉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변 수	B (B)
환경의식	-.292 (-.105)
주거지역(농촌)	-7.637 (-.146)**
주택의 유형(공동주택)	-4.701 (-.089)
주택의 소유(임차)	.807 (.013)
주부의 교육수준	2.732 (.115)
가족수	4.341 (.150)***
가정의 소득	.034 (.125)*
주부의 취업	-.387 (-.052)
주부의 연령	-.789 (-.025)
자아분화	-.381 (-.065)
개혁성	-.190 (-.033)
생활만족도	.371 (.050)
Constant	2.637***
F-value	3.184***
R ²	0.113

* p<.05 ** p<.01 *** p<.001

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옷장속에 걸려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의복의 현 가치가 보관 유지 비용보다 낮아지면 폐기하게 된다. 의복의 용도나 유형에 따라 폐기의 요인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대표적으로 정장류, 속옷류, 아동복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원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표 6〉에서 보면 정장류의 경우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유행의 변화

(34.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의복 치수의 부적합(24.8%)과 형태의 변형과 변색(17.4%)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점퍼류는 형태와 색상의 변형(29.4%)과 같은 물리적 효용의 감소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유행의 경과(23.2%)와 색상 디자인의 부조화(18.6%)로 정장류에 비해 유행이나 미적 불만요인의 비중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같은 겉옷이지만 정장류의 경우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때에 주로 입기 때문에 미적요인이나 유행의 경과등이 의복을 착용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지만, 점퍼류의 경우는 스포츠나 캐주얼 웨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적 효용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많아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셔츠나 블라우스의 경우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가 형태의 변형과 변색(33.9%), 색상, 디자인의 부조화(21.7%), 유행의 경과(16.0%)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겉으로 드러내서 입는 의복이 아니고, 잦은 세탁이 필요한 단품류에 속하기 때문에 물리적 효용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유행의 요인은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

속옷류의 경우 형태의 변형과 변색(58.3%)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물리적인 효용의 감소가 속옷류를 착용하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의 경우 의복치수의 부적합(66.9%)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성장에 의해 의복이 작아지게 되어 의복을 입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의복을 처분 이유

(N=786)

	유행 변화	색상, 디자인의 부조화	형태의 변형과 변색	의복치수의 부적합	활동 불편	새로운 의복 구입
정장류	253(34.0)	93(12.5)	130(17.4)	185(24.8)	41(5.5)	42(5.6)
점퍼류	174(23.2)	139(18.6)	220(29.4)	114(15.2)	34(4.5)	52(6.9)
티셔츠나 블라우스	123(16.0)	167(21.7)	261(33.9)	98(12.7)	28(3.6)	64(8.3)
속옷(면제품)	42(5.5)	65(8.6)	476(62.9)	79(10.4)	18(2.4)	46(6.1)
속옷(나일론 제품)	43(5.9)	64(8.8)	391(53.8)	77(10.6)	65(8.9)	60(8.3)
아동복	33(4.8)	55(8.0)	65(9.5)	459(66.9)	19(2.8)	34(5.0)

6. 의류의 처분방법

착용하지 않는 의류의 처분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정장류의 경우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38.2%), 필요한 집에 준다(29.4%), 의류수거함에 넣는다(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장류의 폐기 원인이 물리적 효용의 감소가 아니라 유행이 경과했거나 의복치수의 부적합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점퍼류의 경우 필요한 집에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대상자의 32.9%였으며, 의류수거함에 넣는 경우가 27.2%, 버리지 않고 집에 보관하는 경우가 24.9%의 순으로 정장류에 비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보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티셔츠나 블라우스의 경우는 의류수거함에 넣는다(30.9%), 필요한 집에 준다(21.6%),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린다(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티셔츠나 블라우스는 단품이고 비교적 가격이 싸며 속옷의 개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활용을 하기보다는 폐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속옷의 경우는 면제품의 경우 걸레등으로 사용한다(52.7%),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35.4%)순으로 나타났지만, 나일론 제품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 것(63.8%)으로 나타났다. 속옷류의 경우는 다른사람이 재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지만 면제품의 경우 그냥버리지 않고 걸레등으로 재활용한다면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복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필요한 집에 주는 것(64.0%)으로 나타나, 성인용의 다른 의복에 비해 재사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버리지 않고 보관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7. 내구재의 처분이유

사용하지 않는 내구재의 처분이유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8>과 같다. 내구재중 세탁기의 경우는 오랜 사용으로 수명이 다해서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전체의 6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크기와 용량이 맞지 않아서가 14.8%,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가 13.0%를 차지하여 사용불가능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텔레비전의 경우도 오랜 사용으로 수명이 다해서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전체의 5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크기와 용량이 맞지 않아서가 16.5%,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가 15.6%를 차지하여 세탁기보다는 크기와 용량이 맞지 않아서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약간 많은 경향을 보였다. 냉장고의 경우 오랜 사용으로 수명이 다해서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전체의 4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크기와 용량이 맞지 않아서가 39.1%,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가 10.9%를 차지하여 냉장고는 고장이 나거나 수명이 다하기 전에 크기나 용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는 오랜 사용으로 수명이 다해서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표 7> 의류의 처분방법

(N=786)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의류수거함에 넣는다	필요한 집에 준다	걸레등으로 사용한다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린다
정장류	259(38.2)	168(21.7)	227(29.4)	9(1.2)	73(9.4)
점퍼류	185(24.9)	202(27.2)	245(32.9)	9(1.2)	101(13.6)
티셔츠나 블라우스	120(16.0)	232(30.9)	162(21.6)	87(11.6)	149(19.9)
속옷(면제품)	24(3.2)	43(5.8)	21(2.8)	303(52.7)	264(35.4)
속옷(나일론 제품)	38(5.3)	101(14.2)	23(3.2)	96(13.8)	455(63.8)
아동복	43(6.2)	101(14.2)	447(64.0)	44(6.3)	62(8.9)

〈표 8〉 내구재의 처분이유

(N = 786)

	수명이 다해	싫증이 나서	크기, 용량의 부족으로	유행에 뒤져	새 집에 맞추기 위해	잡은 고장으로
세탁기	503(66.5)	18(2.4)	112(14.8)	6(0.8)	19(2.5)	98(13.0)
텔레비전	432(57.1)	23(3.0)	125(16.5)	20(2.6)	38(5.0)	118(15.6)
냉장고	325(42.6)	13(1.7)	298(39.1)	10(1.3)	34(4.5)	83(10.9)
자동차	271(41.5)	70(10.7)	57(8.7)	48(7.4)	11(1.7)	196(30.0)
가스렌지	483(63.6)	40(5.3)	44(5.8)	17(2.2)	37(4.9)	139(30.0)
안방장롱	295(39.2)	102(13.6)	107(14.2)	66(21.4)	161(21.4)	21(2.8)
소파	299(44.4)	111(16.5)	38(5.6)	87(12.9)	132(19.6)	7(1.0)
책상, 책꽂이	344(47.1)	95(13.0)	126(17.2)	67(9.2)	84(11.5)	15(2.1)

전체의 4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잡은 고장으로 인해서가 30.0%를 차지하였다. 가스렌지는 오랜 사용으로 수명이 다해서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전체의 6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잡은 고장으로 인해서가 18.3%를 차지하였다. 안방장롱은 오랜 사용으로 수명이 다해서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전체의 3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새 집에 맞는 생활을 위해서가 21.4%, 다음은 크기와 용량이 맞지 않아서가 14.2%, 오랜 사용으로 싫증이 나서가 13.6%를 차지하여 기능상 사용이 불가능해서라기 보다는 새 집에 맞추기 위한 경우나 싫증이 난 경우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손쉽게 장롱의 재도장이나 분위기를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구재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파는 오랜 사용으로 수명이 다해서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전체의 4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새 집에 맞는 생활을 위해서가 19.6%, 오랜 사용으로 싫증이 나서가 16.5%, 모양, 색상, 기능이 유행에 뒤져서가 12.9%를 차지한 것을 볼 때 소파는 기능이 다해 처분하는 경우보다는 싫증이 나거나 유행에 뒤진 경우가 다른 어떤 내구재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파는 집안 분위기에 맞추거나 유행에 따라서 가정에서 손쉽게 천갈이를 손쉽게 할 수 있다면 훨씬 처분하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책상과 책꽂이는 오랜 사용으로 수명이 다해서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전체의 47.1%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은 크기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 17.2%, 오랜 사용으로 싫증이 나서가 13.0%, 새 집에 맞는 생활을 위해서가 11.5%를 차지하여 자녀의 성장에 맞춰 용량이 더 큰 책상이나 책꽂이로 바꾸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8. 내구재의 처분방법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내구재의 처분방법은 〈표 9〉와 같다. 세탁기의 경우 내다배출하는 경우가 3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중고시장에 팔거나 물물교환을 하는 경우가 29.7%, 필요한 집에 주는 경우가 25.6%를 차지하였다. 이는 기능이 다해서 배출하는 경우에는 내다배출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고, 사용할 수는 있으나 잡은 고장으로 불편한 경우는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꼭 필요로 하는 집에 보내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텔레비전의 경우도 내다배출하는 경우가 3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필요한 집에 주는 경우가 29.0%, 중고시장에 팔거나 물물교환을 하는 경우가 27.3%를 차지하였다. 냉장고의 경우 필요한 집에 주는 경우가 32.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냉장고의 용량이 맞지 않아 교체하는 가정에서는 필요한 집에 주어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내다배출하는 경우가 28.3%, 중고시장에 팔거나 물물교환을 하는 경우도 26.8%나 차지하였다. 자동차는 중고시장에 팔거나 물물교환을 하는 경우가 76.4%로 가장 많았으며,

〈표 9〉 내구재의 처분방법

(N=786)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중고시장에 팔거나 물물교환을 한다	필요한 집에 준다	복지기관에 보낸다	내다 버린다
세탁기	32(4.2)	229(29.7)	197(25.6)	21(2.7)	291(37.8)
텔레비전	73(9.4)	211(27.3)	224(29.0)	28(3.6)	237(30.5)
냉장고	63(8.1)	208(26.8)	255(32.8)	31(4.0)	220(28.3)
자동차	11(1.7)	509(76.4)	49(7.4)	11(1.7)	86(12.9)
가스렌지	31(4.0)	132(17.0)	150(19.3)	32(4.1)	429(55.3)
안방장롱	59(7.7)	172(22.4)	251(32.7)	49(6.4)	235(30.6)
소파	38(5.5)	143(20.7)	268(38.7)	26(3.8)	216(31.2)
책상, 책꽂이	53(7.1)	90(12.0)	291(38.9)	36(4.8)	272(36.4)

내다버린다는 경우가 12.9%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자동차가 가장 중고시장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스렌지는 내다배출하는 경우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필요한 집에 주는 경우가 19.3%, 중고시장에 팔거나 물물교환을 하는 경우가 17.0%를 차지하여 이는 비교적 가격이 싼 내구재이며, 유행과 관련이 적어 오랜 사용으로 수명이 다해 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방장롱은 필요한 집에 주는 경우가 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내다배출하는 경우가 30.6%, 중고시장에 팔거나 물물교환을 하는 경우가 22.4%를 차지하였다. 소파는 필요한 집에 주는 경우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내다배출하는 경우가 31.2%로 많았으며, 다음은 중고시장에 팔거나 물물교환을 하는 경우가 20.7%를 차지하였다. 책상과 책꽂이는 필요한 집에 주는 경우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내다배출하는 경우가 36.4%, 중고시장에 팔거나 물물교환을 하는 경우가 12.0%를 차지하였다. 안방장롱이나 소파, 책상, 책꽂이와 같이 사용가능한 가구를 무상으로 필요한 집에 주거나 내다배출하는 것은 중고시장의 기능이 활발치 않고 가구는 새것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풍조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주거지역에 따른 쓰레기 처분방법

주거지역에 따른 의류와 내구재의 처분방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품목은 의류의 경우 정장류와 내구재의 경우 텔레비전, 냉장고, 안방장롱 등으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주거지역에 따른 의류처분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장류의 처분행동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chi^2=21.25^{***}$). 도시지역일수록 필요한 집에 주거나 의류수거함에 넣는 경향이 높은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걸레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의류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 적고, 일반적으로 의복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착용하므로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쓰레기의 처리가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매립법인데, 천연섬유의 경우 자연계에서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합성섬유로 된 의류는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특히 근래에 천연섬유보다 합성섬유의 사용량이 더 많은 현실에서 의류의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는 심각하므로 의류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의류수거함을 농촌지역에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내구재의 처분방법을 주거지역에 따라 비교한 결과 대표적인 텔레비전, 냉장고, 안방의 장롱 등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텔레비전의 경우($\chi^2=19.92^{***}$) 도시지역의 경우 중고시장에 팔거나 물물교환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집에 보관하거나 필요한 집에 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표 10〉 주거지역에 따른 생활쓰레기의 처분방법

	처분 방법	도시지역(442)		읍면지역(331)		χ ²
		빈도	%	빈도	%	
정장류의복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173	39.14	122	36.86	21,246***
	의류수거함에 넣는다	99	22.40	69	20.85	
	필요한 집에 준다	141	31.90	86	25.98	
	걸레 등으로 사용한다	3	0.68	6	1.81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린다	25	5.66	48	14.50	
텔레비전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44	9.95	28	8.43	19,919***
	중고시장에 팔거나 물물교환을 한다	136	30.77	74	22.29	
	필요한 집에 준다	137	31.00	89	26.81	
	복지기관에 보낸다	16	3.62	13	3.74	
	내다 버린다	109	24.66	128	38.55	
냉장고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32	7.22	30	8.96	25,825***
	중고시장에 팔거나 물물교환을 한다	142	32.05	66	19.70	
	필요한 집에 준다	154	34.76	102	30.45	
	복지기관에 보낸다	14	3.16	17	5.07	
	내다 버린다	101	22.80	120	35.82	
안방장롱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27	6.16	32	9.70	37,333***
	중고시장에 팔거나 물물교환을 한다	117	26.71	56	16.80	
	필요한 집에 준다	164	37.44	88	26.67	
	복지기관에 보낸다	28	6.39	21	6.36	
	내다 버린다	102	23.29	133	40.30	

농촌지역의 경우 내다배출하는 경우가 많고, 중고시장이나 물물교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고의 경우(χ²=25.83***) 도시지역의 경우 중고시장에 팔거나 물물교환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필요한 집에 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복지기관에 보내거나, 내다배출하는 경우가 많고, 집에 그냥 보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중고시장이나 물물교환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방장롱의 경우(χ²=37.33***) 도시지역의 경우 중고시장에 팔거나 물물교환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필요한 집에 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집에 그냥 보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내다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중고시장이나 물물교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이를 볼 때 농촌지역의 경우 내구재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내다배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중고

시장이나 물물교환의 장소가 적기 때문에 집에 그냥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과 쓰레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구재의 적절한 회수 방법과 중고시장의 활성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0. 주부의 환경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주부의 환경관리행동의 수준은 평균 2.96점으로 환경의식의 수준보다 낮아 환경보전행동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천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환경관리행동을 구매·사용·처분의 3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환경관리행동에서는 처분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한 행동이 가장 잘 실천되고 있어 평균 3.2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생활용품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평균 2.897점으로 비교적 낮아 일반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 환경에 미칠

〈표 11〉 주부의 환경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 수	환경관리행동 B (β)	물품구매행동 B (β)	물품사용행동 B (β)	물품처분행동 B (β)
환경의식	.098(.194)***	-.007(-.030)	.022(.113)**	.065(.174)**
자아분화	-.065(-.059)	-.004(-.032)	.015(.044)	-.042(-.054)
생활만족도	-.130(-.096)	.033(.058)	.017(.032)	.061(.064)
개혁성	.086(.082)	.119(.261)***	-.015(-.034)	.073(.009)
주거지역(농촌)	.940(.097)	-.004(-.0009)	.041(.011)	.342(.048)
주택의 유형(공동주택)	.858(.089)	-.257(-.063)	-.079(-.022)	.888(.128)*
주택의 소유(임차가)	.241(.021)	-.008(-.002)	.304(.075)	.193(.023)
주부의 교육수준	.587(.144)*	.151(.087)	-.029(-.019)	.542(.184)**
가족수	-.703(-.182)**	.041(.024)	.051(.035)	-.662(-.228)***
가정의 소득	-.001(-.006)	-.003(-.151)*	-.0004(-.003)	.001(.032)
주부의 취업	-.009(-.006)	-.029(-.042)	.022(.059)	.017(.015)
주부의 연령	.593(.106)*	.025(.011)	.027(.046)	.561(.138)*
Constant	38.386***	11.947***	7.712***	19.954***
F-value	3.642***	3.219***	2.046**	3.933***
R ²	0.122	0.121	0.026	0.144

*p<.05**p<.01***p<.001

영향을 의식하며 구매하기보다는 생활의 편리성이나 관습에 의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용품의 사용과정에서의 점수가 2.516점으로 가장 낮아 환경관리행동에서는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환경에 미칠 영향이나 쓰레기의 발생량을 고려할 수 있는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주부들의 환경관리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환경의식의 수준($\beta=.194$)으로 환경을 의식할수록 환경관리행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연구자들(노남숙, 1994; 최남숙, 1994; 서정희, 1997)과 일치하며, 다음은 가족수($\beta=-.182$), 주부의 교육수준($\beta=.144$), 주부의 연령($\beta=.106$)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교육수준과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관리행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변순희 외(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가족수

는 적을수록 환경보전의식이나 환경오염을 고려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무영 외(1995)의 자녀수가 적을수록 환경관리행동이 증가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12.2%였다.

일반적인 물품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주부의 개혁성($\beta=.261$)과 소득($\beta=-.151$)이었다. 즉 개혁성이 높은 주부일수록,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물품의 구매시 환경에 미칠 영향이나 쓰레기 발생량을 고려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생활용품의 사용과정에는 환경의식($\beta=.113$)만이 영향을 미쳐 환경을 의식하는 주부일수록 환경오염이 적도록 여러 번 사용하기나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의 처분행동에는 가족수($\beta=-.228$)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부의 교육수준($\beta=.184$), 환경의식($\beta=.174$), 주부의 연령($\beta=.138$), 주택의 유형($\beta=.128$)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수가 적을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쓰레기를 분류배출하는 행동을 잘 수행하고, 쓰레기의 발생량이 적도록 노력하며, 재활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주부들의 환경의식과 가정쓰레기의 처리행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 본 연구에서 현재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는 786부가 사용되었으며,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이 반반정도 되었다. 분석결과 주부들의 환경의식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환경의식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환경문제가 인류의 최우선과제라는 다소 추상적인 환경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제적인 생활에서 실천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미래의 환경교육은 단지 환경보호나 환경보전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필요성에 대한 홍보보다는 실제적인 행동의 결과를 인지할 수 있고, 행동과정을 교육, 훈련시킬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부들의 환경의식은 개혁성이 강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공동주택에 거주할수록, 자신의 주택에 거주할수록,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주부들의 전반적인 환경관리행동은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환경관리행동에서는 이미 발생한 쓰레기의 분류·처분과 관련된 행동은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으나, 생활용품 구매할 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며 구매하기 보다는 생활의 편리나 관습에 의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람직한 행동은 쓰레기가 적게 발생 생활 상품을 구매하여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주부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은 비교적 높으나 실제적인 실천과정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환경교육의 내용은 과거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환경보전의 필요

성이나 의미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즉 가정생활과 환경과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산과 소비, 폐기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행이 지나 착용하지 않는 성인의 정장류나 어린이의 의복, 가정의 내구재인 냉장고, 장롱, 책상과 의자 등을 적절하게 처분하기 위한 물물교환장소나 중고시장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사용가능한 내구재를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쓰레기의 발생량도 감소시키고 내구재나 의류의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자가 전북지역에 국한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농촌지역의 쓰레기 발생의 종류별 파악과 처분에 관한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쓰레기 매립지역의 부족과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권봉애, 강이주(1995) "아동의 환경의식과 처분 행동에 관한 연구-도시와 농촌간의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3권, 2호, pp.35-44.
- 2) 권오정(1995) "미국 농촌지역 노인들의 주거에 대한 개인적인 혁신도", 한국주거학회지, 제 6권 1호, pp.1-8.
- 3) 노남숙(1994) "주부의 환경관리지식 인지도와 환경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
- 4) 노채영, 신호식, 조혜정(1991)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49-62.
- 5) 박명숙(1990) "소비자 효율성에 대한 개념 및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논문집 9집, 425-43.
- 6) 박명희, 정주원(1995) "소비자 처분행동 유형과

-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2-34.
- 7) 박운아, 이기춘(1995) “환경의식적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199-212.
 - 8) 변순희, 계선자(1995) “주부의 환경 보전의식 및 행동에 따른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88-101.
 - 9) 서정희(1986) “환경문제측면에서 본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서정희(1997)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 처분행동 및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권 1호, pp.27-40.
 - 11) 손경희(1993) “인간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발전과 환경과의 조화”, 한일가정학회 기초강연
 - 12) 안길상, 정영숙, 이기주, 이동섭(1993) “생활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에 적극적인 소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1993년도 소비자학회 학술대회 발표.
 - 13) 엄하정(1993) “환경오염 감소와 관련된 주부의 관리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 14) 오연옥, 송말희, 한정화, 황경혜(1995) “환경보전에 관한 인지와 관리행동-대도시, 중·소도시, 군 단위 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권 1호, pp.45-60.
 - 15) 유연실(1996) “성인 여성의 의복 폐기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142-56.
 - 16) 이무영, 이정우(1995)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유형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4), 11-23.
 - 17) 이승신, 이해임, 류미현(1993)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자 능력” 한국소비자학회, 1993년도 소비자학회 학술대회 발표.
 - 18) 이정우, 황경혜, 정진희(1994), “도시주부의 생활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과 관리행동”, 생활과학연구지, 숙대생활과학연구소.
 - 19)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20) 최남숙(1994) “서울시 주부들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전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21) 홍기남(1991) “생활환경 문제에 관한 소비자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22) Brooker, G.(1976) “The self-actualizing Socially Conscious Consumer”,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 pp. 107-112.
 - 23) Webster F.E, Jr(1975) “Deter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ly Conscious Consume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 pp. 188-96.